



## 불투레의 토양과 알리아니꼬의 환상적 만남 엘레나 푸치

엘레나 푸치는 알리아니꼬 델 불투레 품종으로 만든 단 한 종의 와인으로 여러 와인 평론가에게 주목받은 와이너리이다.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엘레나 푸치는 최근까지 17개의 빈티지로 수많은 어워즈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글 조은지 사진 및 자료제공 KS와인

### 엘레나 푸치의 탄생

1960년, 제네로소(Generoso)는 불투레 지역의 산기슭에 자리한 포도밭(Contrada Solagna of Titolo)을 사들였다. 이곳에서 그의 가족은 터를 잡아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오직 가족을 위한 와인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된 그의 손녀, 엘레나 푸치(Elena Fucci)는 6ha의 포도밭을 그 집 앞 마당으로 관리하기엔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들의 포도밭, 즉 티톨로는 불투레 지역에서 알리아니꼬를 재배하는 가장 오래된 밭이었기에 관심을 가진 구매자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70년 이상 된 울드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매력적인 포도밭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엘레나는 지질학 공부를 시작했고, 노력 끝에 그녀의 이름을 건 엘레나 푸치 와이너리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 알리아니꼬 델 불투레의 정석, 티톨로

엘레나 푸치 와이너리는 그들의 포도밭에서 이름을 딴 티톨로 와인을 출시한다.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엘레나는 이 지역의 페루아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기에 딱 한 종의 와인만을 만들고 있다. 가족이 살고 자랐던 티톨로 밭에서 2000년 빈티지를 시작, 매해 최상의 티톨로를 출시하고 있다. 초반에는 외부 양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지만 2004년 빈티지부터는 엘레나가 직접 와인 메이킹을 하고 있다.

포도밭은 600m 고도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고도로, 비교적 춥고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포졸라나(Pozzolana)라고 불리는 화산재 퇴적물 토양은 와인에 미네랄리티와 독특하게 발현되는 스모키한 화산재 풍미를 가져다준다. 특히 엘레나 푸치는 알리아니꼬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미세기후(microclimate)와 페루아의 완벽한 조합을 티톨로에 표현하였다.

### 세계가 주목하는 와인, 수많은 수상으로 입증하다

티톨로는 불과 2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와인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개의 빈티지 중 14개의 빈티지는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와인과 음식 전문 매체, 감베로 로쏘에서 최우수 등급인 트레비키에리를 받았다. 또한 이탈리아의 공신력 있는 와인 평가지, 비벤다에서 우수한 와인에게 수여하는 5grapes 등급을 다섯 번 받았고 <Wine Spectator>가 선정한 TOP 100 finest winery of Italy에는 네 번이나 등재되었다.

로버트 파커에게는 항상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2013년 빈티지는 이 지역에서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97점을 받았다. 저명한 와인 평론가, 닐 베케트와 휴 존슨의 '죽기 전 꼭 마셔야 할 와인 1001'에도 등재되었다. 특히 2019년에 출시한 2017 빈티지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이 뽑은 TOP 50 best Italian Wine에 48위로 선정되었다.





엘레나 푸치가 직접 알리아니코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엘레나는 매해 빈티지마다 좋은 평가를 받는 티톨로로 인해 와인러리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은 이 와인을 마시고 미소 지어주는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한다.

### 가족의 도움으로 이룬 비약적인 성장

1960년부터 바실리카타에서 알리아니코 와인을 최초로 재배한 엘레나의 할아버지, 제네로소는 현재 90세의 나이에도 매일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 와인을 만드는 철칙임을 강조한다. 그는 화학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의 주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와인 양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일반 와인들에 비해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그 끝에 완성된 최상의 와인, 티톨로는 엘레나 푸치를 바실리카타의 떠오르는 와인러리로 만들어주었다. 그녀의 아버지, 살바토레(Salvatore) 또한 티톨로 와인을 시중에 판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엘레나 푸치의 성장 원동력에는 그녀의 가족이 있었다.

### 끊임없는 소통으로 세상에 알리다

엘레나는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추구한다. 특히 각종 와인 전시회에 참여하며 소비자들에게 티톨로 와인을 소개한다. 그녀는 단순 홍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를 와인 메이킹에 참고한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소셜 미디어 활동에도 열정적이다. 한국에서도 이탈리아가 주관한 시음회에 참여하여 한국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들로 엘레나 푸치는 오랜 전통을 가진 타 와인러리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인지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KS와인 임이연 대리는 “엘레나는 방대한 마케팅 자료와 함께 열정적인 서포트를 해준다”며 “와이너리와 와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엘레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탈리아 남부의 토착 품종인 알리아니코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특히 볼투레 지역 알리아니코는 더욱 시장 점유율이 낮다”며 “KS와인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시장에 티톨로를 알릴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



### 티톨로

#### Titolo Alianico del Vulture 2017

품종 알리아니코 델 볼투레 100% 특징 70년 이상의 울드바인에서 수확한 알리아니코로 만든 와인이다. 어둡고 농밀한 붉은 루비색, 약간의 스파이시한 향과 체리, 블루베리 잼, 로즈마리, 담배 잎, 시나몬과 바닐라의 복합적인 향이 코를 자극한다. 드라이한 맛과 풍부한 탄닌을 느낄 수 있는 풀 바디 와인이며, 환상적인 피니시 또한 매력적이다.

수입사 KS와인 문의 031-752-2579



맥기건 와인의 닐 맥기건

## 헌터 밸리의 두 전설이 만든 맥기건 와인즈

닐 맥기건(Neil McGuigan)은 1992년 형과 함께 맥기건 와인즈를 설립하고, IWSC에서 네 차례나 올해의 와인메이커에 선정된 인물이다. 2010년 CEO에 올랐던 그는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처음 한국을 찾은 그를 지난 11월 27일, 파크 하얏트 서울 코너스톤에서 만났다. 글 강은영 사진 장영수

### 와인메이킹 DNA

닐 맥기건은 스무살 때 와인 양조 학위를 받고 41년간 와인을 만들어 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헌터 밸리의 포도재배자였다. 아버지는 와인메이커의 길을 택했다. 헌터 밸리에서 태어난 그와 형 브라이언은 ‘와인메이커가 할 일’에 대해 듣고 자랐다고 한다. “아버지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과학과 농사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도나무가 가



MCQUIGAN  
WINES

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와인 병에 고스란히 담는 것이 와인메이커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와 브라이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92년 맥기건 와인즈를 설립했다. 형이 CEO를 맡을 동안 그는 양조 책임자로 일했다. 헌터밸리 와인협회가 선정한 ‘살아있는 전설’ 브라이언 맥기건과 IWSC에서 네 차례나 올해의 와인메이커로 선정된 닐 맥기건, 두 형제의 시너지로 맥기건은 빠르게 성장했다. 시작은 헌터밸리였지만 이제는 거의 호주 전역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근래에는 테즈메이니아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맥기건 와인의 정체성

“10달러든 150달러든 맥기건 와인이 지키고자 하는 철학은 부드러움에 있다.” 닐은 맥기건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이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와인으로 핸드메이드(Handmade)를 꼽았다. 한편 최상급 와인 필로조피(Philosophy)에 대해서는 “맥기건을 한 단계 상승시킨 와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첫 빈티지로 출시된 이 와인의 병에는 닐의 싸인이 새겨져 있다.

“높은 알코올에 오크 숙성은 배로 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일은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숙성되는 와인을 원한다. 알코올도 적당하고 영할때부터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며 나이 들수록 우아해지는 와인 말이다.” 필로조피에 대한 설명은 와인 이름 그대로 맥기건의 철학이기도 했다. 닐 맥기건은 화이트 와인을 잘 만들기로도 이름나있는 메이커이다. 특히 헌터 밸리에서 훌륭한 세미용을 선보인다. 그중에서도 빈 9000 세미용은 헌터 밸리 세미용의 전형을 보여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수상을 많이 한 와인 중 하나다.

그는 2020년의 트렌드를 전망하며 “꽃 향이 나는 와인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헌터 밸리의 세미용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방한에 빈 9000 세미용을 2007 빈티지부터, 2009, 2013, 2018까지 버티컬로 테이스팅으로 준비하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 큼이나 기존 시장에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보여줄 것을 시사했다. ☞ 수입사 와이벨 문의 02-325-3008